

전남도, 벼 조기 재배 면적 2만2000ha로 늘린다

태풍 피해·병해충 예방 추석전 햅쌀 공급 확대

전체 면적 13%... "육묘·모내기 앞당겨 실시" 홍보

전남도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태풍 피해 및 병해충을 예방하고 햅쌀 시장 선점을 통한 고객 확보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조기 재배를 전체 면적의 13%인 2만2000ha 규모로 확대한다.

벼 조기 재배는 매년 반복되고 있

는 태풍과 벼멸구 등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추석 전에 햅쌀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다.

도는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태풍 피해가 심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조생종 벼 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전남 1호' 등 조생종 신품종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 조기 재배를 위한 모내기 시기가 오는 5월 20일까지임을 감안해 시·군과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벼 조기재배 확대를 위한 대농가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9월 8일로 어느 해 보다 빠르고 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추석 전 햅쌀 공급을 위

해 육묘 및 모내기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해줄 것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위삼십 전남도 친환경농업 과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조생종 벼 재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8월 하순께 수확해 소비자가 원하는 맛좋은 햅쌀 공급으로 전남 쌀의 판매망을 확보하겠다"며 "고품질 조생종 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해 재배기술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07년 8640ha(4.6%)를 시작으로 1만4056ha(2009년)→1만 8515ha(2010년)→1만 9232ha(2011년)→1만9300ha(2012년)으로 조기재배 면적을 늘려왔다.

지난해의 경우 해남 2480ha, 강진 2105ha, 나주 1980ha 등 22개 시·군 2만1000ha에서 조생종 벼를 재배해 추석절 이전에 전량 판매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종식 원도군수(왼쪽에서 5번째) 등 9개국 생태수산물도시 시장과 슬로시티 관계자들이 '완도 선언문'을 채택하며 미래 식량보고인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미래 인류 식량자원 해조류 가치 재조명

완도군에서 열린 세계 슬로시티 시장회의(이하 시장회의)가 '완도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지난 23~26일 나흘간 완도군을 비롯해 9개국 생태수산물도시 시장과 슬로시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회의는 완도수산물 특장과 시장포럼, 청산도 방문, 완도선언문 채택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시장회의는 국제 슬로시티연맹 회원도시 가운데 바다생태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도시를 발전

시키는 해조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조류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해조류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양식어장 정화과 재배치 사업 등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근해 어선 감축을 실시해 어족 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양식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바다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바다청소의 날 운영과 폐유 자율 수거 운동 등 어민 의식 개선을 추진해 청정바다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수산물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생태 수산물도시 회의 성료

완도선언문 채택 등 협력강화

이러 김 군수는 생태수산물 도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환경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 관심을 높여 나가며 국제사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도 선언문' 채택과 지속적인 생태수산물도시 시장회의 개최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9개 도시 시장들은 육지식량 부족에 대비해 미래 식량보고인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고, 탄소 다이어트 실천, '물 발자국'(Water Footprint)개념을 도시 개발 정책에 도입하고 '바닷물 발자국 지표'를 개발해 바다생태 보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생태수산물도시 시장회의를 2년에 한 번씩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각 도시별 '올해의 해양 수산물' 선정 등 9개 항의 완도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이러 김 군수는 생태수산물 도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환경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 관심을 높여 나가며 국제사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도 선언문' 채택과 지속적인 생태수산물도시 시장회의 개최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9개 도시 시장들은 육지식량 부족에 대비해 미래 식량보고인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고, 탄소 다이어트 실천, '물 발자국'(Water Footprint)개념을 도시 개발 정책에 도입하고 '바닷물 발자국 지표'를 개발해 바다생태 보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생태수산물도시 시장회의를 2년에 한 번씩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각 도시별 '올해의 해양 수산물' 선정 등 9개 항의 완도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강진 수곡 첫 일본 수출

강진군 수곡 재배농가들이 지난 24일 일본 수출길에 오르는 절화(切花) 수곡을 차량에 싣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화훼공판장으로 첫 출하되는 수곡은 1800본 가량(농가수취 금액 540만원)이다. <강진군 제공>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영암, 내달 9일까지 모집

영암군이 '2014년도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 대상자를 5월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우수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위해 실시된다. 대상자는 지난 2008년 12월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 가운데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자로, 주민등록 기준지의 주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과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시 최대 2억 원의 국고융자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1%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외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침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기자 dss@

취업 예정자 진로 지도·우선 채용

목포대-중기진흥공단 협약

목포대학교(총장 최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남부권 본부(본부장 장덕복)가 지난 24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 협력 업무 지원체계 구축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 협력 ▲대학 및 산

업체의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취업 예정자 진로지도 및 우선 채용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일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 경쟁력을 지원하고, 산업 수요형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중소

기업 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국내 수출마케팅 및 국제협력 지원, 기술 컨설팅 종합 진단 및 중소기업 연수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자금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중남부권본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역본부로 구성되며, 전남지역본부 등 20개 지역본부를 관할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경로당 찾아가는 한의약 의료서비스 호응

무안보건소, 12회 실시

무안군 보건소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 노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우선사업 일환으로 공중보건 의사와 동산대 한의학과 교수를 초빙해 골관절 질환 처치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1회씩 총 12주 동안 진행되는 골

관절 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은 사상 체질 분류와 기공 체조, 한의약 식이, 한의약 양생법 등 프로그램을 구성돼 있다.

군 보건소는 침과 뜸을 이용한 한방치료와 개인별 체질에 맞는 건강양생법 교육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강화시켜 질환을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노인들 스스로 능동적 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한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금” 금 매매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38P → 9000만원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53P → 1억 3000만원 (시세/감정가 2억원)
77P → 2억 3000만원 (시세/감정가 3억원)
단, 2014년 4월 30일까지
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1:1 개인지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